

Part 2 — 시장을 읽는 눈 (Q&amp;A)

# 2월 4주차 Q&A — 케빈 워시 지명 이후 시나리오 & 금과 비트코인의 경쟁

· 정리 2026-05-13

## 케빈 워시 + 금 vs 비트코인 — 베센트 책사의 큰 그림

박종훈의 경제로드맵 일곱 번째 Q&A. 본 회차는 두 큰 질문을 깊이 풀어줍니다 — 케빈 워시 지명 이후 시나리오, 그리고 미국이 금 버리고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황당 주장에 대한 반박.

강사가 짚는 첫 핵심: 트럼프가 매파 케빈 워시를 지명한 데는 11/3 중간선거 사활을 노린 치밀한 계산이 있습니다. 1월 폭등은 도움 안 되고 10월 말까지 상승이 결정적.

베센트 책사의 큰 그림 — 2~4월 방치 / 5~10월 부양 / 10월 말 가장 뜨거운 증시. 케빈 워시는 "금리 인하 + 양적완화 X" 하이브리드로 FOMC 12명을 설득하기 더 유리한 매력적 선동주의자.

두 번째 질문은 "미국이 금 버리고 비트코인" 주장 — 강사 단호 반박: "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단 한 명, 그것도 한국에만 있습니다."

# 11/3

트럼프 중간선거 사활일 — 모든 정책 큰 그림의 종착점

케빈 워시는 매파인데 왜 지명했을까? 그리고 "미국이 금 버린다"는 한국인 1명만 주장하는 황당론의 진짜 시각은?

## Q1 — 왜 매파 케빈 워시를 지명했나

트럼프 대통령은 돈 풀어 주가 올리는 걸 좋아하는 대통령. 그런데 매파 케빈 워시를 지명? 이유는 명확합니다 — **11월 3일 중간선거 사활**.

1~2월 상승은 중간선거 도움 안 됩니다 (사람들은 10달 전 일 기억 안 함). 결정적인 건 10~11월 초까지 상승. 1월 폭등 시 오히려 10월에 떨어질 가능성 ↑.

그래서 트럼프 핵심 참모들(월가 책략가)은 천천히 미국 증시를 끌어올려 10~11월까지 오름세 지속시키고 싶다는 게 강사 진단. 1월 케빈 워시 발표 자체가 시장 "패닉"을 만들어 1월 폭등을 막은 셈입니다.

다음 카드에서 케빈 워시의 하이브리드 성격과 진짜 노림수를 봅니다.

## 케빈 워시 = 하이브리드 (금리 인하 + 양적완화 X)

매파/비둘기파 정의를 보면 케빈 워시의 특이성이 명확해집니다. 매파 = 금리 올리고 돈줄 죄자. 비둘기파 = 금리 내리고 돈 풀자. 케빈 워시는 "금리 내리고 돈줄 죄자"인 하이브리드.

매파라 불리는 이유 — 트럼프의 여러 후보 중에서 "가장 매파"라서 시장이 깜짝 놀랐던 것. 트럼프의 진짜 노림수는 따로 있습니다.

FOMC 12명 의결권 중 1표뿐인 연준 의장이 "하이브리드 입장으로 FOMC를 설득하기 더 유리"해서 임명. 강사가 정확히 "매력적 선동주의자"라 표현하는 인물 — 금리 인하 X 매파를 설득하기 위해 "돈은 안 풀어도 금리는 내려도 된다"는 논리로 다가갑니다.

### ■ 매파 vs 비둘기파 vs 케빈 워시

분파	입장
매파	금리 올리고 돈줄 죄자
비둘기파	금리 내리고 돈 풀자
케빈 워시 (하이브리드)	금리 내리고 돈줄 죄자

## 청문회 4/21 → 5월 confirm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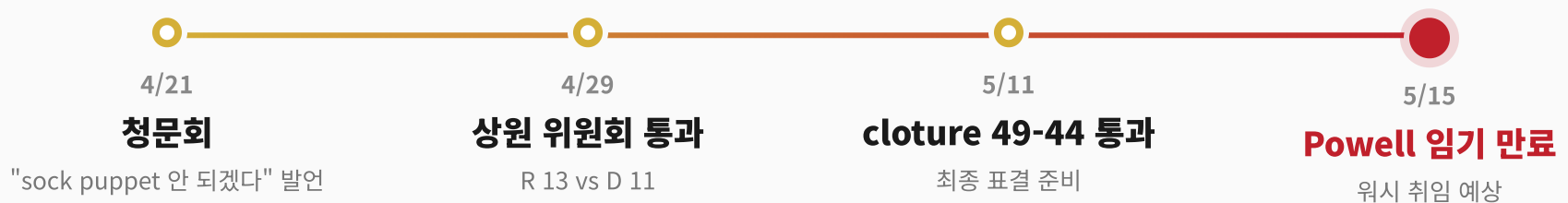
강사 "5월 취임 불확실" 진단이 본격 진행됐습니다. [4/21 청문회 → 4/29 상원 위원회 통과 \(R 13 vs D 11\)](#) → 5/11 cloture 49-44 통과.

[5월 11일 주 최종 confirmation 예상](#) — Powell 임기 5/15 만료에 맞춤. 워시는 청문회에서 두 가지 핵심 발언을 했습니다.

"트럼프의 sock puppet 안 되겠다" — Fed 독립성 강조. "인플레 framework 개혁" — 통화 정책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의지. 강사 "하이브리드" 진단과 정합. († 1)

트럼프가 임명했지만 단순 꼭두각시가 아닌 자기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는 게 결정적입니다.

### ■ 케빈 워시 confirmation 일정



† 1 케빈 워시 청문회 + confirmation aljazeera.com

## 주가 올리는 두 방법 — 재정 + 통화

미국 정부와 연준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:

**재정 정책** 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돈을 풀면 주가 급등. 발행하면서 풀면 상승 정도. 미국 재무부가 하는 것. **통화 정책** — 연준이 돈을 마구 찍어내거나 기준금리 내림. 없던 돈을 새로 뿌리니까 더 강력.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하는 것.

트럼프 대통령은 올 하반기부터 두 방법 모두 집중. "인간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"라는 단서를 강사가 명시 — 외부 충격(이란 전쟁 등) 가능성 항상 존재.

### ■ 주가 올리는 두 방법

**\*\*재정 정책\*\*** (정부 돈 살포)



주가 급등

**\*\*통화 정책\*\*** (연준 돈 찍기 + 금리 ↓)

**\*\*더 강력한 주가 급등\*\***

**없던 돈 새로 찍는 통화 정책이 더 강력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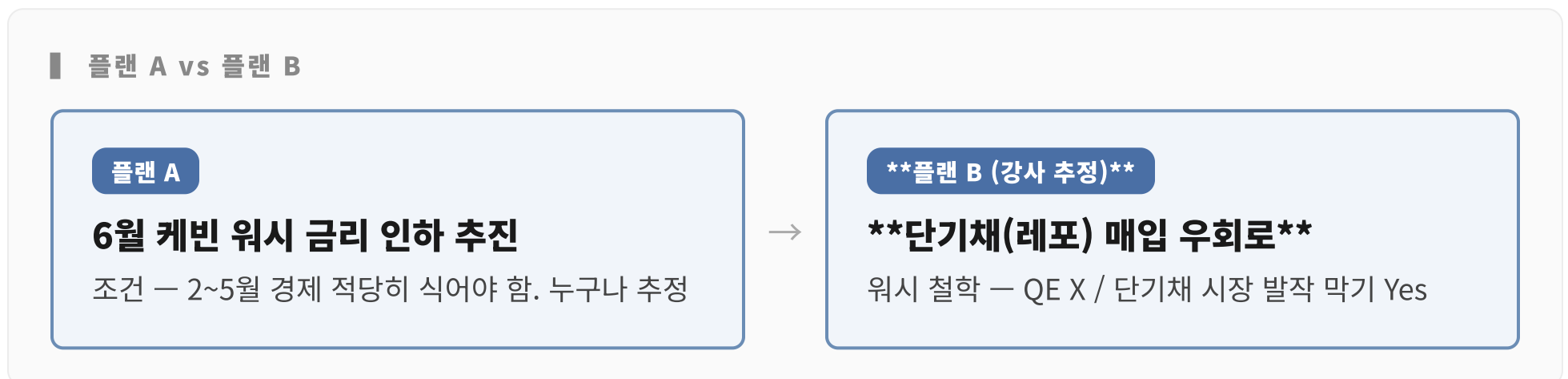
## 플랜 A vs 플랜 B

트럼프·베센트 책사의 두 가지 시나리오:

**플랜 A** — 2~5월 미국 경제가 적당히 식으면 6월 케빈 워시가 FOMC를 설득해 금리 인하 추진.  
강사 "누구나 추정하는 플랜"이라 표현.

**플랜 B (강사 추정)** — 5월까지도 미국 경제·증시가 뜨거우면 케빈 워시도 금리 인하 못 함. 우회로 = **단기채(레포 시장) 매입**. 워시 철학 — 장기채 매입(QE)은 인플레 만드니 X / 단기채 시장 발작 막기는 Yes.

장기채 매입은 FOMC 다수 결정 필요해서 어렵지만 단기채 시장 개입은 연준 의장 + 뉴욕 연은 총재 의지만 있으면 가능. 정치 성향 문제 아니라 "시장 깨지는 문제"라 다른 매파들도 찬성 가능성 ↑.



## 베센트 책사 치밀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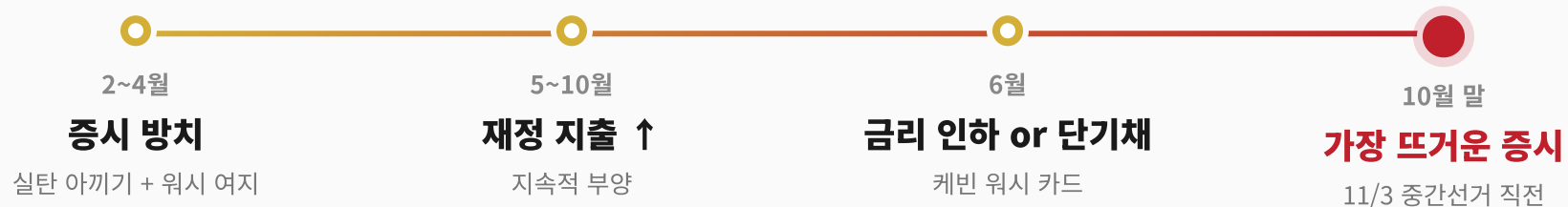
강사가 짚는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큰 그림:

**2~4월 증시 방치 모드** — 일부러 안 올림. 재정 정책 부양 여력이 있음에도 실탄 아끼는 중. 케빈 워시가 금리 낮출 수 있는 여지 주는 의도도 있음.

**5~10월 재정 지출 지속 증가 + 6월 연준 금리 인하 or 단기채 매입** — 두 정책 동시 + 케빈 워시까지 가세하면 주가는 정말 빠른 속도로 계속 오름.

**10월 말 가장 뜨거운 증시** → 11/3 중간선거 트럼프 공화당 승리. "5월부터 10월 사이에 가장 뜨거운 증시를 만들어 중간선거에 승리하자"가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세운 계획일 가능성 ↑.

### 베센트 책사의 큰 그림



## 위험 3가지 — 인플레이·채권·스마트 머니

인간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강사가 짚는 3가지 위험:

**인플레이션 재발** — 선거 직전 인플레이 튀면 긴축 강요. **채권 시장 반란 (Bond Vigilantes)** — 정부 재정 위험하다 판단되면 국채 매각 → 국채 금리 폭등. **선거 전 스마트 머니 이탈** — 큰손들이 "이거 선거 확인할 게 아니라 미리 빠지자" 결정.

"3분기까지는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다. 문제는 선거 전에 팔려는 스마트 머니"가 강사의 정확한 진단. 베센트 치밀 계획의 마지막 복병.

### ■ 베센트 계획의 3가지 위험

위험	영향
인플레이션 재발	긴축 강요 — 베센트 계획 무산
Bond Vigilantes	국채 매도 → 금리 폭등
선거 전 스마트 머니 매도	큰손 빠져나감 — 마지막 복병

## Q2 — "미국 금 버리고 비트코인?" 한국인 1명만 주장

수강생 강릉님이 전해준 주장 — "포트북스에 금이 없으니 미국이 금은 돈이 아니라 선언하고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변경한다."

강사 답은 단호하다. "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단 한 명, 그것도 한국에만 있다." 미·중 패권 전쟁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 세계 누구도 모르는데 한국인 1명만 진실 안다? 말이 안 된다.

"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조회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"는 게 강사 진단. 강사는 "남의 전문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걸 되게 싫어하지만 위험한 주장이라 어쩔 수 없다"고 명시.

다음 카드에서 세계 최강 비트코인 예찬론자도 "금 폐지 X"를 봅니다.

# 세계 최강 비트코인 예찬론자도 "금 폐지 X"

강사가 짚는 정량 검증 — 세계 최강 비트코인 예찬론자들도 "미국 금 폐지" 주장 X:

**마이클 세일러 (Strategy 회장)** — "비트코인이 금보다 우월(Better Gold)". 하지만 "미국 정부가 금을 버릴 것" X. "비트코인+금 공존"이 명확한 입장.

**신시아 루미스 (미 상원의원, 가장 강성)** — 트럼프 비트코인 공약 입안 핵심 인물. "연준이 보유한 금을 재평가(Revalue)해서 그 차액으로 비트코인 사자" — **금 폐지 X**, 어디까지나 "재평가".

[2026년 세일러 발언이 강사 진단 검증](#) — "Bitcoin은 digital capital, gold는 analog capital". 2035년까지 비트코인이 금 시총 추월 전망이지만 "**금 폐지**" 주장은 X. (+ 3)

## ■ 세계 최강 예찬론자 — 금 폐지 X 입장

인물	입장
마이클 세일러 (Strategy)	"비트코인+금 공존" / 2035년 BTC 시총 추월
신시아 루미스 (상원의원)	"금 재평가해서 BTC 추가 매수" — 폐지 X

## 포트뉴스 8천 톤 — 1천 톤 비어도 세계 최고

강사가 짚는 정확한 진단 — "미국의 금이 장부 그대로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동안 금 가격 떨어뜨리려고 온갖 장난질을 쳤기 때문에 금 실물을 여러 번 팔았을 것."

다만 8천 톤이 하나도 없는 정도는 너무 과한 사기. 아마 한 1~2천 톤쯤 비어 있을 수는 있어도.

**중요한 점** — 미국이 한 1~2천 톤 비어 6천~7천 톤이라도 **세계 최고의 금 보유국**. 가장 금이 많은 나라가 "갖고 있는 금이 없다"고 치고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한다? "앞으로 미국의 재정이나 달러를 누가 믿겠습니까?"라는 강사 반박.

다음 카드부터 글로벌 자산 vs 로컬 자산 시각으로 이 황당론의 진짜 오류를 봅니다.

## 글로벌 자산 vs 로컬 자산 — 시각 핵심

강사가 이 주장의 "치명적 오류"라 짚는 부분 — 자산을 보는 시각이 한국에 갇히면 안 된다.

**로컬 자산** = 특정 국가 법·신용 의존. 원화, 한국 부동산, 한국 국고채, 튀르키예 자산. **글로벌 자산** = 특정 국가 통제 벗어남, 전 세계가 인정. 금·은(100%), 달러·미 국채·미 주식(95→90%), 비트코인(100→90%).

"한국은 G10까지 갔지만 지금 14위, 원화는 글로벌 시각에서 로컬 자산"이 강사의 명확한 진단. 튀르키예 자산처럼 보는 게 정확. 한국인이 이 구별을 못 하니까 "미국이 금 폐지하면 가능"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옵니다.

### ■ 글로벌 자산 vs 로컬 자산

분류	예시
로컬 자산 (특정 국가 의존)	원화, 한국 부동산·국고채, 튀르키예 자산
글로벌 자산 (전 세계 인정)	금·은 (100%) / 달러·미 국채 (95→90%) / 비트코인 (100→9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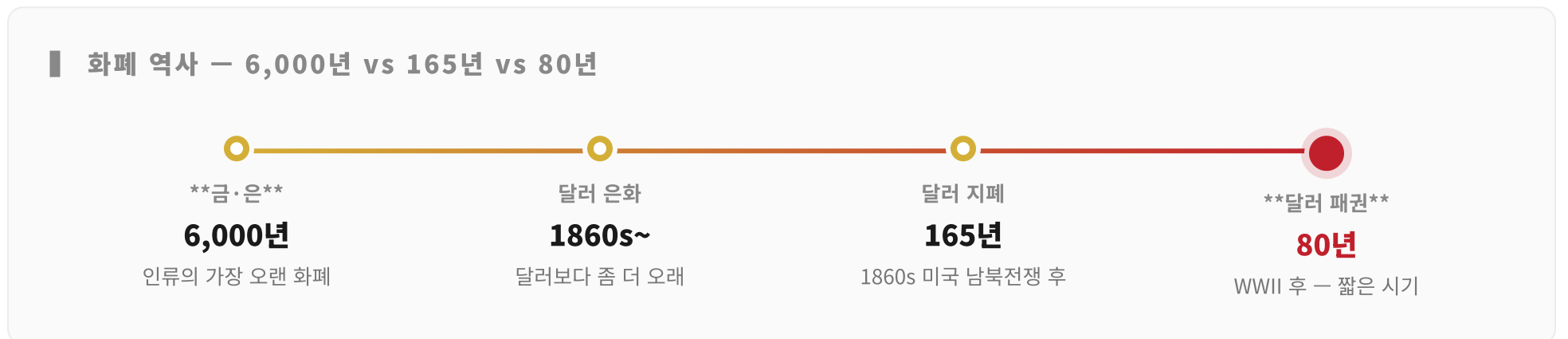
# 금·은 6,000년 vs 달러 165년

화폐 역사 비교가 강사 시각의 결정적 정량:

금·은 — 무려 6,000년 인류의 화폐. 달러 은화 — 좀 더 오래. 달러 지폐 — 165년만. 달러 패권 — WWII 후 80년만.

달러 패권 전성시대 80년에 걸쳐 "금이 더 이상 돈이 아닐 수도"라는 착각. 미국이 "금은 더 이상 돈이 아니야" 선언해도 전 세계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돈.

한 나라가 글로벌 자산을 마음대로 폐지 못함이 핵심. 다음 카드에서 실제로 패권국이 글로벌 자산 폐지 시도했던 결말을 봅니다.



## 1720 프랑스 — 금 불법화로 영국에 패권 내줌

가끔 금이 돈이 아니라고 선언했던 패권 국가들이 있다는 게 강사 진단. **1720 프랑스**가 대표 사례.

그때 당시 프랑스는 영국에 맞먹는 패권 국가. 그런데 무슨 짓을 했나 — **금과 은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다. 종이돈 리브르만 사용하라.**

결과 — 프랑스인들이 리브르 안 믿고 금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장롱 깊은 곳에 보관, 리브르를 휴지 취급. **프랑스 경제 박살 → 수십 년 후퇴 → 영국에 완전히 패권을 내줌.**

강사 진단 "트럼프와 베센트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. 금을 더 이상 돈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시장에 방출하면 중국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. 그런 바보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."

글로벌 자산은 규제하면 규제 밖에서 거래된다 (유로 달러 사례). 미국이 마음대로 폐지 X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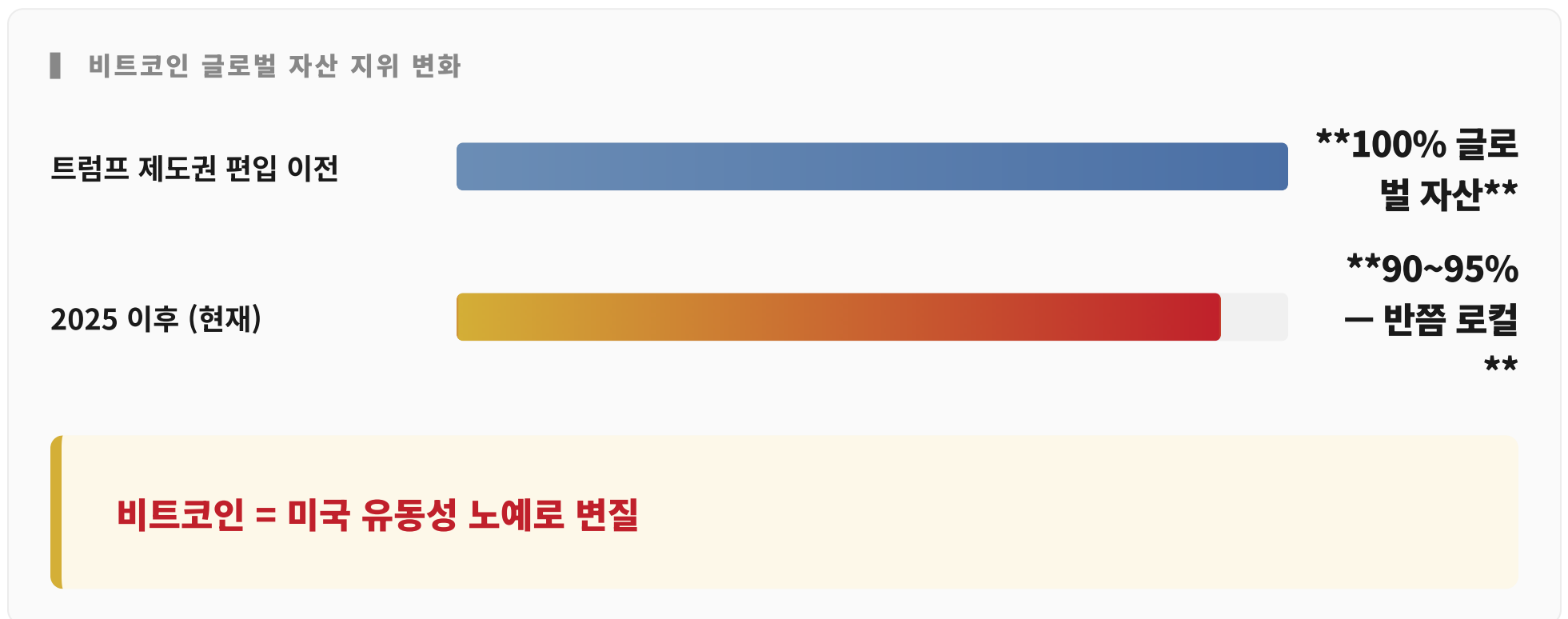
# 비트코인 = 미국 유동성 노예로 변질

비트코인은 완벽한 글로벌 자산이었다. 어떤 정부 통제에도 없는 탈중앙화 화폐. 그런데 **트럼프 2025년 제도권 편입**으로 변화:

이전 — 100% 글로벌 자산. 미국·중국·인도 다 거래 가능. 2025 이후 — 90~95% 글로벌, **반쯤 미국 로컬 자산**.

**브릭스 기피** — 중국은 비트코인 사면 감옥, 브라질·러시아도 멀어짐. 결과 — **비트코인은 미국 유동성에 완전히 좌우되는 미국 유동성의 노예**. 미국 돈 풀면 비트코인 ↑ / 미국 유동성 줄이면 비트코인 ↓.

강사 정확한 진단: "이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을 약점으로 바꿀 양날의 검.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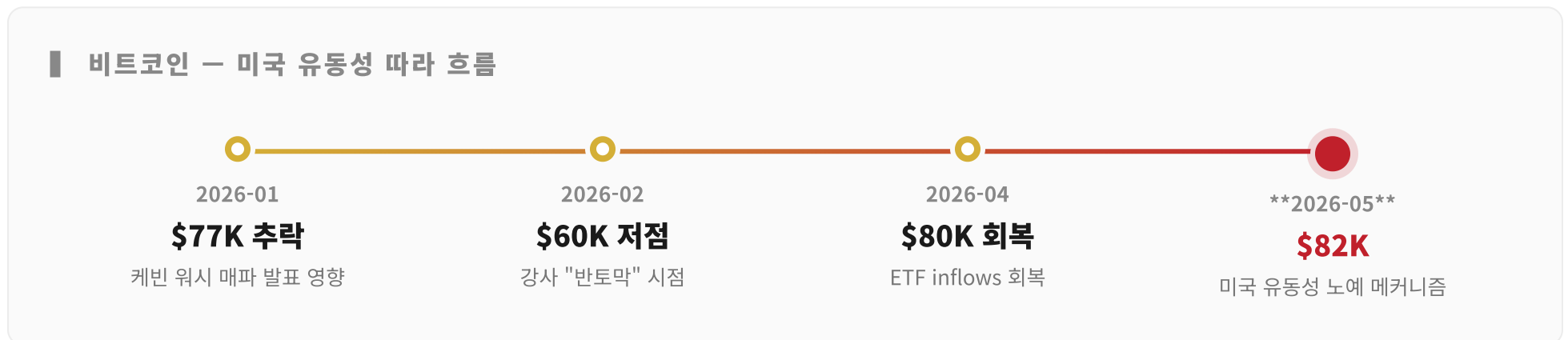
# 비트코인 1월 \$77K → 5월 \$82K — 미국 유동성 발현

강의 시점 "비트코인 반토막" 표현의 정량 검증:

2026 1월 약 \$77K 추락 → 2월 \$60K 저점 → 4월 회복 \$80K → 5/5-6 \$81,286~\$82,320. 강사 "반토막" 표현이 정확히 발현 — 2월 저점 기준 고점 대비 약 절반 수준.

4월 ETF inflows 회복으로 institutional 자금 유입 재개. 강사 "미국 유동성 노예" 메커니즘 정확 발현 — 미국 시장 분위기에 좌우. (+2)

강사가 짚은 "5월부터 미국 재무부가 유동성을 막대하게 풀면 자산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" 시점이 4월 회복으로 발현.



+2 비트코인 5월 \$82K fortune.com

## 4년 차 상승 — 에브리싱 랠리 끝, 분화 본격

강사가 짚는 시대적 큰 그림 — 미국 증시 4년 차 상승 진입. 1·2·3·4년 차까지 연속 상승은 흔하지 않은 사례.

4년 차 상승의 특징 — 에브리싱 랠리 끝. 지금까지는 모든 자산이 다 올랐지만 이제는 분화 본격. 금 vs 비트코인 경쟁 시작 + 미국 증시 종목 간 경쟁 본격화.

[드러켄밀러 Q4 2025 13F가 이 흐름의 신호](#) — Meta·Arm·MongoDB·SanDisk 전량 청산, Brazil·원자재·항공으로 회전. 25~30% 골드 + 20~25% 에너지 원자재 비중. "미국 증시 10년 stagflation (1966~1982 평행)" 가설. (+4)

강사 진단 — "5월부터 미국 재무부가 유동성을 막대하게 풀어도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오를 것". 4년 차 분화 흐름이 핵심.

## 강의가 짙은 시각 정렬 4가지

본 회차에서 강사가 명시한 결론은 **시각 정렬** 중심입니다. 강의는 자산을 보는 시각을 정리하는 회차로 흐릅니다.

**1) 케빈 워시 큰 그림** — 베센트 책사 계획 (2~4월 방치 / 5~10월 부양 / 10월 말 정점 → 11/3 중간선거 승리). **2) 글로벌 vs 로컬 자산 분류** — 원화는 로컬, 금·은은 글로벌. 한국인 함정에서 벗어나기. **3) 비트코인 = 미국 유동성 노예** — 트럼프 2025 제도권 편입으로 변질, 미국 유동성 흐름 들여다보기.

**4) 4년 차 상승 → 분화 본격** — 에브리싱 랠리 끝. 자산 간 + 종목 간 경쟁. 드러켄밀러 자산 배분 변경이 그 신호. 다음 강의 part2\_04에서 한국 원화 4단계와 환전 3단계를 본격 풀어주실 예정.

케빈 워시 지명은 11/3 중간선거 사활을 노린 베센트 책사의 치밀한 큰 그림입니다 — 2~4월 방치 / 5~10월 부양 / 10월 말 가장 뜨거운 증시. 비트코인은 트럼프 2025 제도권 편입으로 미국 유동성 노예가 됐고, 4년 차 상승 진입으로 에브리싱 랠리가 끝나며 자산 간 분화가 본격화. "미국이 금 버리고 비트코인" 주장은 한국인 1명만 주장하는 황당론 — 글로벌 자산은 한 나라가 마음대로 폐지하지 못합니다.

다음 강 — Part 2-4강

### 원화 가치 몰락에 따른 대응 방법

한국 원화 4단계 + 환전 3단계 + Cheap Japan 평행이론

본 콘텐츠는 강의 정리 목적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·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. 외부 자료(+1~+4)는 강의 시점 이후 정량 변화와 사례 후속을 보강합니다.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